□ 긴급좌담회/수입닭고기 증가 대책을 위한 긴급 좌담회

육계산업 수출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생존가능

- 반덤핑 제소 및 세이프가드 발동도 모색해야 -

- 홍 보 팀 -

일 시 : 1999년 7월 16일, 오후 2시
장 소 : 본회 회의실
사 회 : 오봉국 박사(본회 고문)
참석자 : 김인식(체리부로 식품 대표)
이선열(금곡농장 대표)
박천석(신기농장 상무)
강문달(충북양계축협 조합장)
오경록(남덕쌔니테크 대표)
이재용(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정 리 : 김동진(본지 기자)

지난 1997년 7월 닭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된 이후 수입물량이 꾸준히 증가되어 오다 IMF 경제위기로 1998년도에는 다소 감소하는 듯 하였으나 올해 들면서 수입량이 급증하여 지난 5월까지 14,537톤이 통관되면서 1998년 한해동안 수입된 11,940톤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 국내 육계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금년도 수입된 물량을 수입국별로 보면 미국 12,560톤(86%), 태국 1,929톤(13%), 나머지는 유럽연합(EU)에서 47톤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가금인플루엔자로 수입이 규제되면서 다행히 수입량이 없었다. 부위별로 보면 역시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닭다리가 11,507톤으로 전체물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날개, 가슴살 순으로 통관이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닭고기 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육계업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육계산업 보호 및 발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수입이 급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본회에서 지난 7월 16일 업계 관련 인사들을 초청, 오봉국 고문의 사회로 개최한 좌담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오봉국 : 중국마저 수출이 재개될 경우 국내육계산업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 **사회** :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전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지난 한 해동안 수입된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금인플루엔자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중국마저 수출이 재개될 경우 국내 육계산업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밀려오는 외국닭고기의 거센 파도에 대해 국내 육계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자리에서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닭고기 수입이 갑자기 증가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고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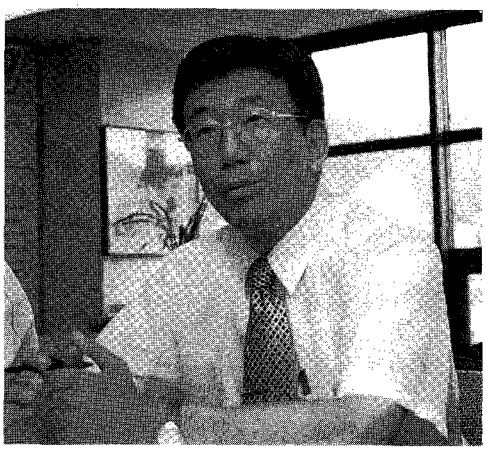
△ **김인식** : 지난해 전체 소비량의 5% 밖에 되지 않던 닭고기가 20% 가까이 급증하게 된 것은 우선 국내산 닭고기 보다 가격이 싸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되는 닭고기들이 국민들에게 쉽게 소비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수입닭고기가 소비자들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유통체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즉, 패밀리 레스토랑, 단체급식소 등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던 음식업소에서도 발골을 하지 않고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공급체계가 이루어지다 보니 값싸고 사용이 간편한 외국산 닭고기를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닭고기 유통이 쉽게 정착되고 있으며 수입업자들의 단위도 커지고 유통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강문달** : 수입증가 원인은 국내외적인 요인이 복합되었다고 봅니다. 외적인 요인을 보면 미국이 지난해 러시아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 파격적인 가격으로 덤핑이 이루어지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가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97년도에는 kg당 1.7불이던 것이 올해만 하더라도 kg당 89센트에 들어올 정도로 덤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 강문달 : 외적으로는 미국의 덤핑, 내적으로는 질병에 의한 닭고기 가격 상승이 수입증가의 원인…….

내적으로 보면 금년초 저혈당증에 의한 피해로 인해 육계 산지가격이 1,700원 이상이 3개월간 지속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비패턴이 지난해부터 통닭개념에서 부분육 개념으로 바뀌어 갔는데 우리 업계가 이를 방심한 것이 시장잠식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육 개념으로 바뀐 것은 수입닭고기에 대한 대책만 강구할 경우 오히려 소비측면에서는 희망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재용** :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지난 1997년 7월 전면 수입개방이 되면서 이미 이 현상은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수입물량이 감소했던 것은 경제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었으며 현재 상반기에 들어온 2만여톤의 물량은 당연한 수치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수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리와 날개는 해동만 잘하면 국내산 닭고기와 구별이 안될 정도로 모양과 맛에서 차이가 없어 수입이 꾸준히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용 : 수입량을 걱정하기에 앞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

문제는 수입량이 왜 이리 많은가를 걱정하기에 앞서 축산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육계 산업이 유통분야에서의 후진성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비를 절감을 기초로 하여 수출에 대한 방향이 충분히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사회** : 사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닭다리는 우리가 식별하기에도 국내산과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혼돈을 가져오고 있으며 소비도 거리낌 없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닭고기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정당하게 유통되고 있는지 갑작스런 수입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석** : 저희 회사에서 닭고기 양념을 취급하다 보니 주문량이 늘어나 닭고기 수입이 급증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산 닭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는 경우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예로 살로만 치킨이나, 둘리 치킨의 경우 순 외국산 닭고기를 쓰고 있으면서도 상표는 국내 고유케릭터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부담없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계인들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며 수입닭고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자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이 계통을 잘 아는 모 계열업체는 수입닭고기에 대한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는 곳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로만 치킨이 급성장한 것도 국내 계열업체들이 외국제품에 대한 국내 닭고기의 차별화를 기하지 못한데서 온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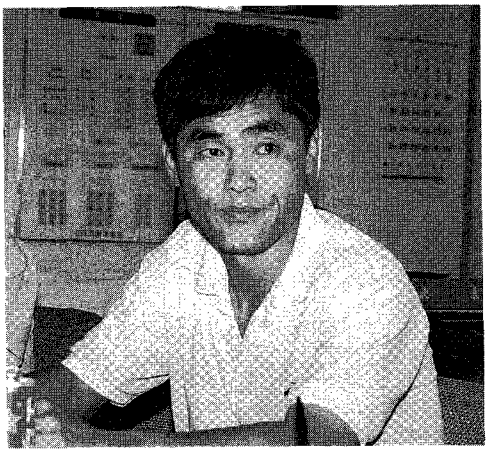
△ 강문달 :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수입주체들은 다양합니다. 특히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될 계열업체들이 수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상들은 순전히 마진을 얻기위해 전문직종으로 업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계열업체나 상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을 보충하기위해 구입하여 가공하거나 판매망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상들은 닭고기 유통에 대해서 잘 아는 수입업자들이 가담하여 계열업체나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경로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국내 닭가격이 비쌀때는 많은 물량이 수입되고 쌀때는 취급을 기피하는 관계로 국내 생산자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회 : 우리는 아직도 수입의 초창기 단계라 국내 육계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국산 식품만을 고집하던 일본의 경우도 이미 닭고기 자급율이 70% 떨어진 상태이며 가까운 우리도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는 시장을 외국에 빼앗긴다는 의미이며 국내 산업이 위축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국내 양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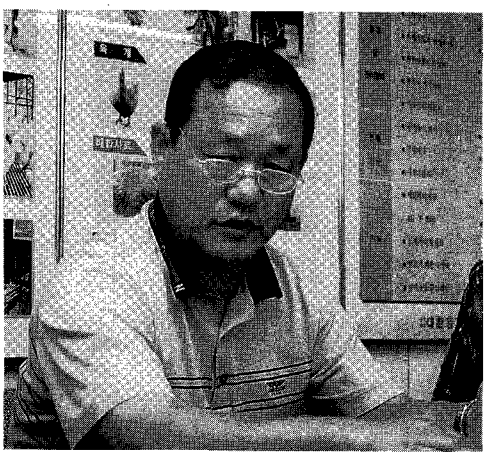
△ 이선열 : 닭고기 수입증가는 우리 농가에서도 어느정도 예견해왔던 것입니다.



△ 이선열 : 수입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함에도 관리를 소홀히한 정부의 책임이 커…….

그러나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물량이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하게되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외국산 닭고기 표시를 한 제품은 눈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즉, 통닭을 제외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부분의 닭고기가 수입육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열업체를 비롯한 관련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곳은 이익금이 남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출정책만 제대로 추진했으면 양돈처럼 수출의 길이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수출규격에 맞게 충분히 2.7kg까지 키워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를 보호하고 수출에 앞장서야할 계열업체들이 앞다투어 수입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육계업자는 누구를 믿고 업을 경영해 나가겠습니까?



△ 박천석 : 불법 병아리인 백세미 양산에 의해 질병 전파의 요인으로 작용, 경쟁력 저하를 가져와…….

△ 박천석 : 닭고기 홍보를 위해 종계·부화업계에서는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스티커를 제작 부착토록 추진을 하고 있으며, 자조금 제도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희 종계업계에서보면 외부적으로는 수입닭고기에 의해, 내부적으로는 불법 백세미 생산에 의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육계산업은 과거 계획적으로 물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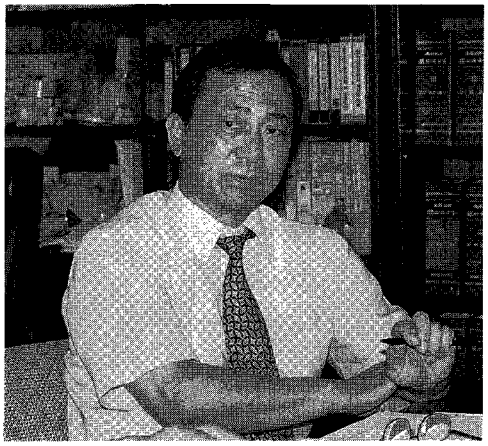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에는 통계에도 전혀 잡히지 않는 불법 병아리인 일명 백세미로 하여금 전혀 수급조절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질병전파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백세미는 닭고기 생산량의 3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자본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서 시작한 불법 병아리는 현재 규모가 크고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계열주체들이 앞장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쟁력을 키우기는 커녕 육계업 발전에 저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종계·부화업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 사회 : 일본의 경우 닭고기 소비량이 160만톤이 되는데 이중 50만톤(32%)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실정이고 수입량중 절반은 자국민이 생산한 물량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즉 브라질의 경우 생산물량의 70%가 일본인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태국과 중국에는 합작회사가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나름대로 국제화시대에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육계산업을 보호하면서 수입닭고기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김인식 : 우리가 할 일은 우선 외국 닭고기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는 길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등 수출국들이 한국을



△ 김인식 :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출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급선무…….

제2의 일본으로 여겨 덤핑을 자행할 경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산업자원부 내의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발동하여 WTO에 제소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반덤핑 과세를 적용시켜 수입량을 줄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제소하는 자체만으로 Chill effect(간접수입견제)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 육계산업이 급속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SG(Safe Guard)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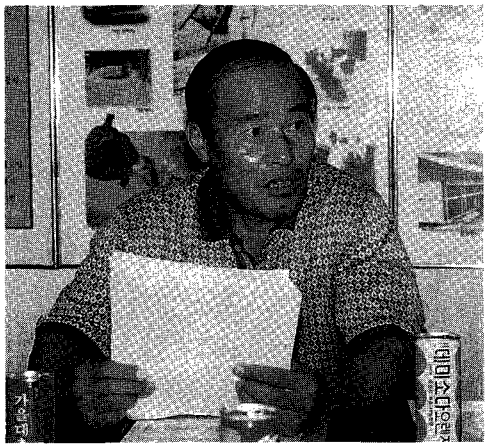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수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돈의 경우 1991년부터 수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지금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 수출을 하면서 문제해결을 해 나가야지 미리부터 안된다고 생각하면 아무일도 못합니다. 일본에 신선육으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 제품가격의 80%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신선육으로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 이재용 : 육계는 큰 시설없이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사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급조절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올해 육계 사육수수가 지난해 보다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면 수입 닭고기로 인한 피해는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수출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려면 수출을 해주는 곳도 있어야하고 수입국에 맞는 규격을 맞추어야 하며, 냉장육을 수출하려면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모든 생산에서부터 가공, 보관까지 수입국에 맞게 종합적인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조금 사업입니다. 자조금 제도 마련없이는 육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없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국내산 닭고기가 외국산 닭고기보다 위생적이고 맛있다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경록 : 정부차원에서 시간과 돈을 안들이고 음으로 양으로 닭고기 수입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은 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가금인플루엔자건만 하더하도 정부가 질병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통제수단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수입을 막을 수 있었듯이 이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칼자루를 쥐고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말씀



△ 오경록 : 닭고기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은 검역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

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역측면인데 검역만으로는 방역에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닭고기는 질병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행규칙 등 규제수단을 만들어 질병 격리, 차단 차원에서 닭고기는 별도로 수입보관 창고를 만들어 격리, 운영할 경우 양계산업을 위한 방역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수출할 곳은 일본밖에 없는데 아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수출을 포기해서도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여건도 중요하지만 보관하는데 있어서 빙장상태(0±1℃)로 이동할 경우 신선도가 오래가므로 이런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처럼 외국에서 생산해서 역수입하는 것도 미리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즉, 중국과 태국에 합작형식으로 수출전문도계장을 설립하여 지원할 경우 국내에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회** : 머지않아 우리 육계산업은 30%까지 외국닭고기로 시장이 점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계인들은 이에 대해 더욱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시설보다는 유통에 신경을 써 정책을 펴나가야 하며 시장축소로 인해 살아남는 농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수출관계도 많은 토의가 있었는데 대일 수출은 낙관도 포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체가 출혈수출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이를 충분히 보조해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계관련업계가 나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공동으로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아갈 경우 결코 육계산업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계

양계유통전문

● 병아리 (산란계, 육용계)
● 중 추 (산란계, 중추농장 직영판매)
● 노 계 (산란계,육용종계)

대림유통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1179번지
전 화 : (0417) 574-4600/1
대 표 : 변 광 일
농 장 : (0417)582-3827
팩 스 : (0417)572-5949